

중동 플랜트 수출상담회 개최

KOTRA(대표 홍기화)는 국민 중동순방을 맞아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3월25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한국-중동 플랜트 비즈니스 협력 심포지엄> 및 <한국-중동 기계·플랜트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홍기화 KOTRA 사장 및 두산중공업 등 주요 국내기업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중동지역에서는 하심 야마니(Hashim Yamani) 사우디 상공부 장관을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발주처 및 바이어 약 250여명이 참여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중동의 기계·플랜트산업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다각적인 주제 발표와 함께 국내기업의 플랜트 공급역량을 홍보한 계기가 됐으며, 아울러 중동 최대의 발주처인 Saudi Aramco가 향후 발주할 100억달러 프로젝트 계획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함으로써 현지 프로젝트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OTRA는 심포지엄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한국-중동 기계·플랜트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국내기업은 오일 가스 기자재, 석유화학·전력·담수설비, 의료기계, 변압기·모터·전동기를 포함한 산업용 중전기기류, 플라스틱 가공기계, 콘크리트 벽돌 제조설비 등 중소형 플랜트, 건설기계 제조 수출기업인 효성 등 23사가 참가해 발주처 벤더 등록을 10건 이상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학저널 2007/03/26>